2025년 1월 제60호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 편집: 본당 편집회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주님 세례 축일 (2025년 1월 12일)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이사야 42,1)

The Baptism of Christ by Piero della Francesca (1442)
The National Gallery,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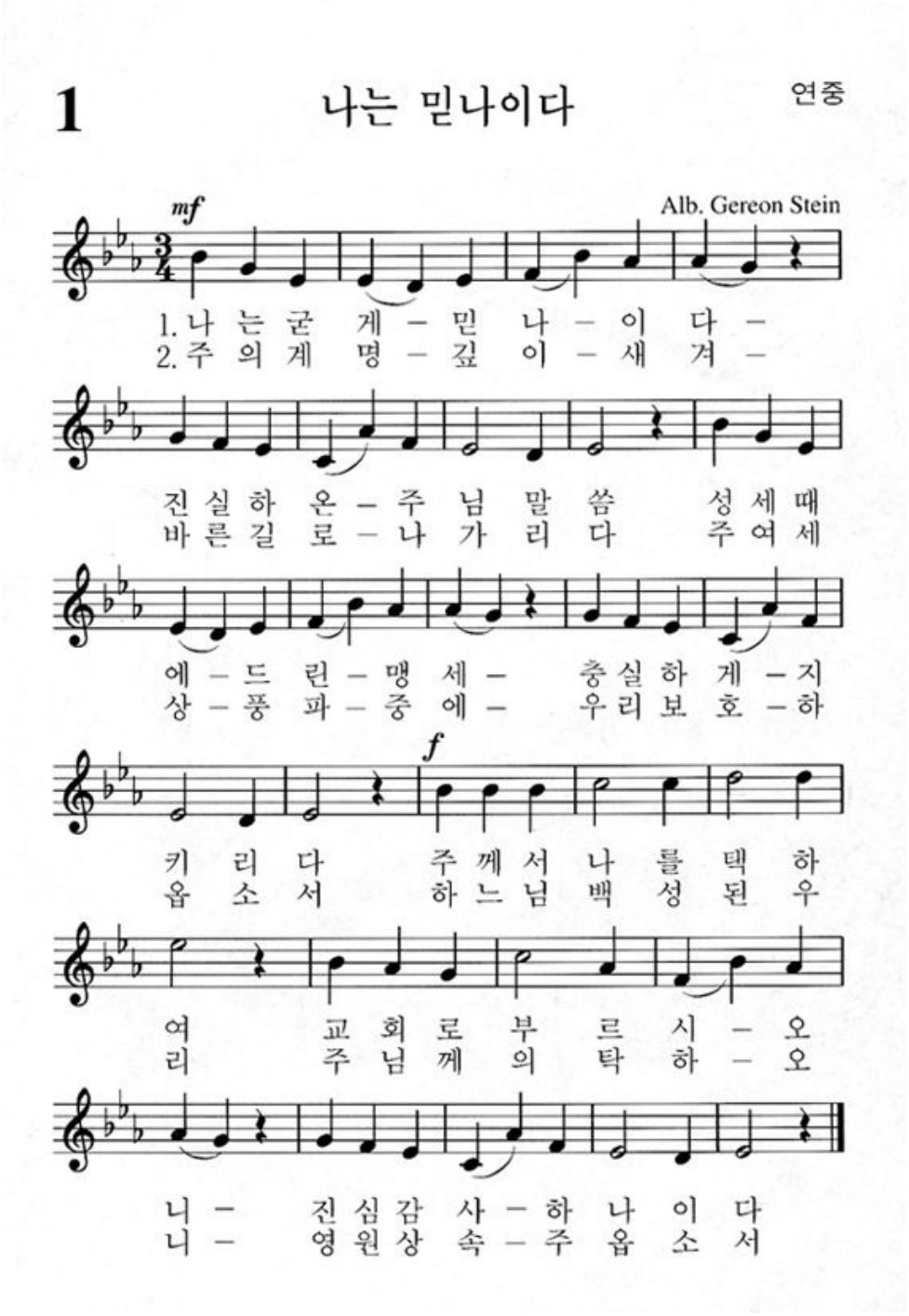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 하늘이 열렸다."
(루카 3,21)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1번 '나는 믿나이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SCAN ME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이사야 42,1-4. 6-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2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3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4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6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7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루카 3,15-16. 21-22)

그때에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21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곽경민 바오로 형제님께서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날에 세례 성사를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하느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시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바오로 형제님과 그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AA2]
-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루카 3, 11)

  대림절을 맞아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또한 12월은 자선의 달이기도 합니다. 도르가회, 주일학교 불우이웃돕기 모금 운동등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자선 바자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당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바자회 활동으로 모이게 될 수익금은 멕시코에 소재한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잎이 부자가 낸 많은 돈 보다 낫다."** (루카 21, 1-4)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림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T]
-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스바니야 3,15)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스바니야 3,17)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제게 위안과 희망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되어주십니다. [NV2]
-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다."** (스바니야 3,17)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더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NV2]
-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루카 3,10)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 청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뜻밖의 순간에 신부님의 강론이나 내가 읽는 책 안에서 또는 타인과의 대화 중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십니다. 먼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느님의 뜻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V2]
-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루카 3, 13)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게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더 소유하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제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성실히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NV2]

- **"만족하여라"** (루카 3, 14)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 자신이 마음껏 기뻐했던 적이 얼마나 드물었는지 돌아봅니다. 나는 늘 더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온전한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V2]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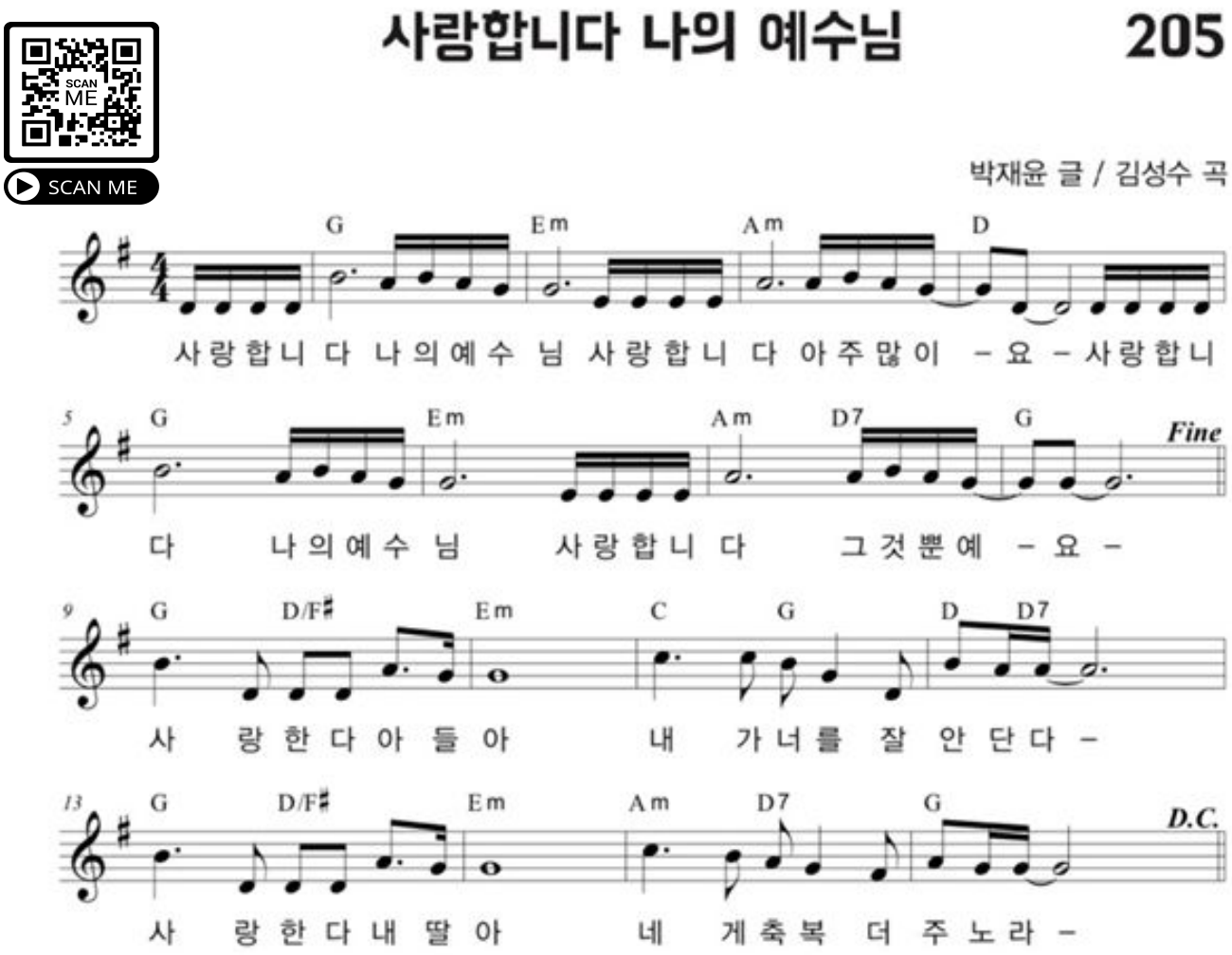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였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 셀라책 205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1절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봉헌

역대 본당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사제와 수도자 성소를 지향으로 올 한 해 동안 (12/01/2024 대림 1주일 ~ 11/ 23/2025 연중 34주일) 기도 봉헌을 드립니다. 매월 우리의 기도가 쌓여가는 기록을 공유해드립니다. 본당 설정 50주년 기도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등불

한해를 돌아보게 되는 지금 이시간.
유독 마음이 시렸던 지난 11월이 떠오릅니다
.
위령성월 11월은 유독 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위령성월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추워지는 미시간 날씨가 서글퍼 이 긴 겨울을 어찌 지내야 하는 생각 등으로 어지럽고. 심란해져 괜히 울적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담아 연도를 모여서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기도 모임에 함께 하기 위해 먼 길 연도하러 다녀가시는 자매님께 먼 길 잘 다녀가셨냐는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매님께서는 “당연히 아버님 먼 길 떠나시는 길에 기도의 등불 밝혀 드려야지요.” 하며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그 문자를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뒤로. 기도의 등불이라는 다섯 글자가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되뇌일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예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기도의 등불’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림 성경쓰기를 하는 아이에게도 예수님 오시는 깜깜한 길 성경 쓰기를 통해 ‘기도의 등불’ 밝혀 드리자며 권유를 하기도 하고, 12월에 하느님의 자녀가 된 아이의 대모를 하게 되면서도 ‘기도의 등불’ 밝히는 대모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의 일 년을 돌아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의 등불’ 밝혀주는 사람이었는지 한 번 더 저의 삶을 되짚어 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기도의 등불’ 밝게 밝혀주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등불’ 밝혀주며 주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글 김미경 낸시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주사랑

2024 성경 잔치 묵상글
모세오경 말씀과 함께

세례받은 지 제법 오래된 저이지만, 이렇게 성경책을 접하고 다른 신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책을 펼치고 창세기 첫 부분만을 반복하던 저에게 이번 모세오경 통독은 하느님의 사랑과 그것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처음 본인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제 안에 느껴지고 그려져서 제 마음도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성당 생활을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공동체'의 중요성,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제가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기도를 해 보고, 주변의 한 명 한 명을 좀 더 챙기고 신경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또한 제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과연 내게 주신 하느님의 목적과 쓰임은 무얼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제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잡아 봅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제 마음이 너무도 벅차오름이 느껴집니다. 처음 이 의자에 앉아서 묵상 글쓰기 문제를 보았을 때 느꼈던, 이 마리아홀의 냉기는 모두 사라지고 제 마음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노력해 한 분이신 하느님 곁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같은 기회를 주신 본당 공동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우리 모두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하느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면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5절의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끝까지 마음속에 담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창세 1,31)

저는 늦은 나이에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자주 하느님의 이 마음 '참 좋았다'를 깊이 공감합니다. 둘러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주변 경치와 평화로워 보이는 하늘과 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들, 모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느끼며 그럴 때마다 화살기도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 6, 5)

저의 마음은 특히 '힘을 다하여'에 머무릅니다. 세상의 잡다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영혼을 흔들고 괴롭히는 나쁜 생각과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애써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래 전 이스라엘인들이 겪어냈던 고난과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들이 떠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느님을 알기 전과 후는 많이 다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 세상의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음을 느낍니다.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세도 확연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알기 전에 '잘 키운 자식'의 모습과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깨달은 '잘 자란 자녀'의 모습은 세속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함을 느꼈습니다. 탈출기에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제가 몰랐던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변함없이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반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느낀 당황스러움은 옛날 힘든 과제를 하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는 성경의 내용이 어렵기도 했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공부하는 팀원들에게 물어보고 그들과 묵상을 나누면서 조금씩 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외할머니가 제가 밥을 먹을 때도 "내 새끼, 참 예쁘고 좋다."하시고, 제가 자다가 일어났을 때도 "내 새끼 참 좋다."하시면서 한없이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던 그 시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도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하느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참 좋았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만물을 바라보셨을지 그 온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인간들이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실 때 하느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모세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당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약한 인간이기에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마도 '쉐마, 이스라엘' 기도처럼 하느님을 믿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면 조금씩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지루한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읽어보니 의외로 재미있는 시즌 드라마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캐릭터도 있고, 서스펜스도 있고, 서사도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면서 재밌는 드라마 시즌1이 끝난 느낌입니다. 시즌2에는 어떤 인물들이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기대해 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를 빚어낸 분이십니다. 그리고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십니다. 저는 그분 천지창조의 한 일부분으로 탄생되었으며 그 모든 것 중에 으뜸으로 칭하셨습니다. 이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제 안에 하느님의 그 위대한 창조 사건이 잉태되어 있음을 느꼈을 때 저는 두렵기도 하면서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저 위대한 천지창조의 여정에 저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저 자신이 소중해졌습니다. 나 자신, 하느님이 창조하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하느님을 향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지요. 하느님이 빚어낸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가지려고 애쓰고,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저의 한평생의 여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것도 무늬만 가톨릭인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저 자신을 함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번져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느꼈던 무서운 하느님과 정의로운 하느님의 한계를 넘어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도 저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냥 추상적 단어로만 느껴졌던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히 제 마음에 박힙니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체험했던 불공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저의 진심어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저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마음에서 밀어내고 탈탈 털어내 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모세오경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진심으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그 사랑을 제 자신과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토록 긴 세월 구비구비 이루어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 자신 속에 다져놓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채찍질하며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포함하여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며 좋아하셨는데 나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 사랑을, 그 관심을 얻어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나도 부모이고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애쓰는 아이는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창세기 내내 그리고 성경을 주욱 읽어 내려가며 든 생각은 역시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왜 하느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잘한 것도, 뛰어난 점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이 나를 만드셨는지, 왜 내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그 자격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이웃들도 같은 의미에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므로 그들에게 두는 나의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고 **“참 좋았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머리로 설득하는 이 논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길 바라며 비판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이를 기억해 내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창세기를 공부하며 새롭게 다가온 말은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철옹성같이 굳은 마음과 태도는 결국 반하느님적인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이러한 오류를 얼마나 자주 범하고 있을까요! 완고함을 버리고 그냥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되어 보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만드신 ‘나’, 나뿐만 아니라 생명 받은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여정을 배워가도록 노력하는 지상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되새깁니다.

들숨과 날숨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그러다 잠시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으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께서 불어 넣어주신 이 숨이 몇 분간만 멈춰지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멈춰집니다. 우리 생명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는 일상의 행복과 기쁨, 슬픔과 고통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집중하던 이 숨 쉬는 삶, 일상이 넘어간 그다음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이 지상 생활의 그다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한다는 것은 그 순간까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만드셨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선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세상을 지향한다면 내가 숨을 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긴 호흡으로 더 긴 꿈을 간직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혹시 그 고민 속에서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조금만이라도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씩 작은 조명이 켜지듯 당신을 두드릴 때 나도 모를 감동으로 눈물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항상 내 생각과 다른 지점, 상상도 못 했던 지점에서 빛이 켜지는 느낌이 들 때 작은 소리로 외쳐 봅니다. ‘이게 당신의 사랑입니까? 아! 당신인가요?’ 이런 아주 평화롭고 깊은 해수면 같은 고요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방해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이 넘치는 평화와 행복으로 당신을 저절로 부르는 것이 제가 이 지상에서 당신께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흘러가는, 때로는 고통이라는 현실로 숨이 막혀가는 그때를 경험하는 순간 간절히 ‘하느님!’하고 외칩니다. 당신의 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외침으로 내가 아는 방식으로 알려주십니다. 아직 이 정도만 내가 아는 하느님이십니다. 모를 때는 좋아 보이는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다시 당신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숨이 멈춰질 때까지 그 노력을 하는 현실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답할 수 있는 실천의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주시기를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사랑’이란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 하게 엄청난 것인지요… 입에 담기도 벅찬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니 손수 만드신 것이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일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특히 사람을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부분을 생각하며 저의 모습을 많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하느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죄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인식한 후 성경공부를 일년 동안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시는 ‘보시니 참 좋은’ 하느님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자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며 제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은 여전히 무서운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의 잔재가 더 많이 남아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우선이고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정의로움도 생기는 것’이라고 우길 때도 있습니다. 문득 예전에 의식을 잃고 병상에서 사흘 동안 헤매다 깨어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까지 사실 저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는데 사흘간 의식 없는 어둠 속에 있다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었는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했었는데 그 깜깜한 사흘간의 어둠은 ‘나도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하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선과 악, 사람에 대한 판단과 잘잘못의 여부는 하느님께만 달린 주권임을 알았습니다. **“너희는 이웃에게 앙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느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근시안적인 인간의 눈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구분 짓고 금을 댔던 저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을 새기며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그냥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고 그 시련들을 잘 받아들여 보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불행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좀 아파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라며 '아마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나의 시련을 도구로 쓰시는 거겠지'라고 그분의 뜻에 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의 성공도 부럽기보다는 같이 축하해 줄 수 있고, 나의 잘됨에는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고, 이웃의 고통과 제 고통에는 또 다른 하느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니 또 다른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느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저의 작은 다짐과 함께 겨자씨만한 그분의 사랑을 배운다면 그것은 작더라도 큰 사랑을 삶에서 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제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은 여전히 무섭고 정의로운 하느님이 더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이어지는 삶의 여정에서 꼭 '사랑의 하느님'을 찾고 싶습니다. 너무도 부족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께 의지하며 정말 끝까지 '사랑의 하느님'이 깃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열심히 달려 마지막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 6,4-5)

세례를 받은 지 25년, 그동안 제 신앙생활은 계속 흔들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몇 가지의 경험을 통해 주님의 현존과 사랑을 느끼며 점점 주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자연스럽게 내 가족, 이웃과의 관계에도 연결이 되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닌,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초기에는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나와 이웃, 가정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아이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득 안고 성당에 앉아 있었을 때 주님은 그 사람들조차 품으라고 하셨고 침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나 자신,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앙갚음하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으며 나 아닌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까지는 아니어도, 그 길을 가는 과정이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위로해 봅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빛과 모든 생물과 동물, 인간까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느님 없이는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잘 보존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보셨을 때 흐뭇한 미소를 띠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모두가 다 다르기에 그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때로 세상은 불공평하기도 하고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악인이 잘 사는 세상을 보면 힘이 빠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도 역시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신앙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거나 앙심을 품는 것을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복수를 끊어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 같은 주님, 우리가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흠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의 노력이 합쳐질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항상 깨어 있고, 나의 안테나가 늘 주님에게로 향해 있어서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냥 대우를 못 받고 관심을 못 받아도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거리며 '혼자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고 위로하며 살아온 반평생의 삶이었습니다. 피정 때 참석했던 한 프로그램 중에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를 묵상하며 감사드리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를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가며 처음으로 깊은 감동과 감사함에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그분 뜻대로 만들어진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며 사랑받는 존재임을 매 순간 상기시키면서 그 어떤 일이 닥쳐도 꿋꿋하게 희망을 잃지 않고 칠전팔기의 믿음의 정신으로 일어나 걷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삶 전부를 믿고 봉헌할 수 있는 나의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진리'이십니다. 나의 삶은 그분을 닮은 삶이어야 함을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과 사랑에 따라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나의 인간성은 유혹에 잘 넘어가고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허물짓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늘 실망스럽고 후회하고 뉘우치며 고백성사를 보고 또 보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이 악습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을 느끼며 한탄합니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는 이 성구를 늘 되새기며 하느님 뜻에 다 맡겨드리고,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허물밖에 드리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봉헌하며 나를 맡겨드립니다.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던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5남매를 키우시느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 끝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지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오래전에 다녀온 성령묵상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별 어려움 모르고 또한 신앙심도 부족할 때 멋모르고 다녀온 피정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일, 2일, 그냥 스케줄에 따라 묵상을 하던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며 내가 잘못 살아온 게 물밀듯이 후회가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기까지 온 건 다 내가 잘해서라고, 그러니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던 저에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지치지 않게 응원하며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정을 다녀온 후 깨달음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하기로 마음먹고 내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 동료가 프랑스에 영어선생님으로 6개월 동안 가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외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 친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젊었을 때 영어도 잘 모르면서 미국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생활과 이민 생활을 하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신앙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감사드리며, 그 친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묵주반지를 선물로 주며 어렵고 힘들 때 성모님께 기도해 보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친구는 프랑스로 가고, 저는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화살기도,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참으로 고맙다며 묵주반지의 힘으로 어려운 외국생활을 잘 보내고 왔다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의 마음도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작은 나눔으로 전교를 하게 된 것과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결국 큰 은총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기 전까지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의 피와 살이 섞인 누군가가 웃고 자라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얼굴로 이런 기분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지켜주시는 것이겠구나'하는 생각에 괜스레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친구들을 사귀고 인간으로서의 기쁨과 슬픔과 좌절을 느끼며 커가는 모습에 불안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아이의 상처, 인간관계에서 받은 깊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이웃에 대한 원망과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에 빠져 하느님을 멀리하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고 나면 별 거 아닌데 뭐…"하는 아이의 말에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라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기도도, 성경읽기도, 봉사활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와 얘기를 하다가 예전의 일을 언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냐고 물었더니, "응, 뭐, 사람 보는 눈이 좋아진 것 같아. 오히려 좋은 친구들이 많아졌어. 크려고 그랬나 봐."하며 웃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상처를 주시지만 또한 잘 아물어서 성장하게 해 주시니 감사한 일이네'하고 생각하며 저도 계속해서 제가 믿는 바를,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